

가정 예배 모범

- 2022_07_31_장기중앙교회

매일성경 7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

▶ 함께 기도 (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)

=> 우리와 동행하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.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▶ 함께 찬양 (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)

=> “나의 피난처 예수”

▶ 함께 읽기 (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)

=> 시편 89편 38~ 52절

▶ 함께 묵상 (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)

1)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(38-45절)

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뒤집어진 현재의 상황에 탄식합니다.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애통과 탄식의 분위기로 변한 것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는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습니다. 시인은 잘못된 모습 속에서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죄들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.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.

2) 시인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끊어질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?(46-51절)

시인은 낙심하지 않고,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.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허무하게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.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.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,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,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.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.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.

▶ 함께 나눔 (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)

▶ 주기도문 (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)